

지방공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지방공업의 역할은 자못 크다.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일찍부터 지방경제가 중앙공업과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했다.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산을 깬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깬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는 방법으로 지방공업이 자기의 자원에 의거한 경제구조를 갖추고 중앙공업과 어깨 나란히 끊임없이 발전했으며 그 도태는 튼튼하다. 지방공업이 용을 쓰며 솟구쳐오를수 있는것은 자립경제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지난해 11월 어느날이었다. 지방공업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과 크나큰 로고를 기울이시는 장군님께서서는 창성명을 찾으시었다.

산과일을 원료로 하여 기초식품, 단물, 산나물장절임을 비롯한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창성식료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제품의 질이 높는데 대해 평가하시고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며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굳이 자체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모든 지방산업공장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고 생산공정을 개진하여 지방인민들의 식료품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었다. 자기 지방에서 생산한 양를 비롯한 자체의 원료로 여러가지 천과 뜨개옷을 생산하는 창성직물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직기를 비롯한 생산설비들을 더 현대적으로 갱신하며 원료를 충분히 보장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할데 대한 과



장자산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업을 제시하시었다.

창성의 현실에서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공화국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굳게 확신하신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산을 깬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깬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는 방법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방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불길을 지어주시었다.

지방들에서 자체로 공장들을 현대화, 과학화하고 지방원료원천에 철저히 의거하여 실정에 맞

게 지방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나라의 경제장성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 인민생활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것은 장군님의 뜻이다. 오늘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삼림포복산물공장과 같이 지방의 특산물종합가공기지를 멋들어지게 꾸려져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으며 회령고려약공장, 순천구두공장, 해주신발공장, 대홍단감자가공공장같은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지방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나라의 경제장성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 인민생활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것은 장군님의 뜻이다. 오늘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삼림포복산물공장과 같이 지방의 특산물종합가공기지를 멋들어지게 꾸려져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으며 회령고려약공장, 순천구두공장, 해주신발공장, 대홍단감자가공공장같은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지방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나라의 경제장성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 인민생활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것은 장군님의 뜻이다. 오늘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삼림포복산물공장과 같이 지방의 특산물종합가공기지를 멋들어지게 꾸려져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으며 회령고려약공장, 순천구두공장, 해주신발공장, 대홍단감자가공공장같은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지방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나라의 경제장성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 인민생활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것은 장군님의 뜻이다. 오늘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삼림포복산물공장과 같이 지방의 특산물종합가공기지를 멋들어지게 꾸려져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으며 회령고려약공장, 순천구두공장, 해주신발공장, 대홍단감자가공공장같은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지방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나라의 경제장성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 인민생활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것은 장군님의 뜻이다. 오늘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삼림포복산물공장과 같이 지방의 특산물종합가공기지를 멋들어지게 꾸려져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으며 회령고려약공장, 순천구두공장, 해주신발공장, 대홍단감자가공공장같은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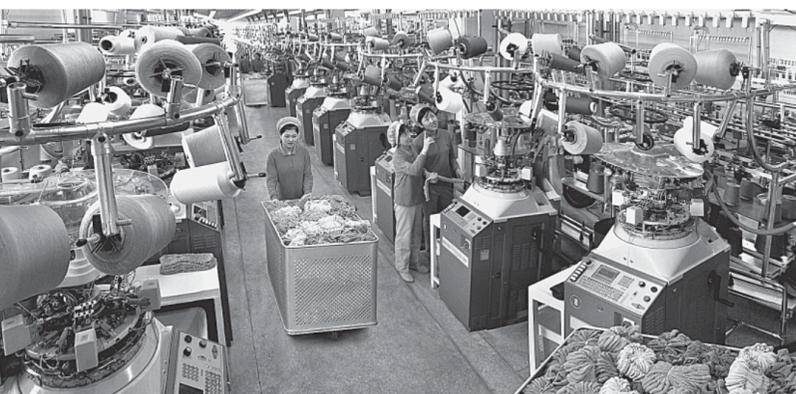
냉면건직공장에서 문양공고 아름다운 천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불길놀이 신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류원신발공장에서 —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있다. — 수성천 식료종합공장에서 —



높은 수준에서 생산하고있다. — 평양양말공장에서 —

2011서안세계원에박람회 관람자들의 반향

태양의 꽃 김일성화와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중국에서 개막된 2011서안세계원에 박람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박람회 조선원은 얼마전 국제판공경쟁 최고상인 금상과 전시금상을 받은 명화들을 보기 위하여 찾는 관람자들로 붐비고있으며 특히 국제경쟁관의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대에는 매일 초만원에 이루고있다.

관람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시어 세계에 널리 알리신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박람회준비위원회 초청처 처장은 김일성화, 김정일화가 금상과 전시금상을 받은것을 축하한다. 이 꽃들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고 하였으며 중국화초협회 부서기장은 사진으로 볼 때에도 그리 하였지만 실물을 보니 꽃들이 황홀하기 그지없다.

꽃들의 아름다움과 함께 날로 좋게 발전하는 중조 친선관계를 넓힐수 있다고 말하였다.

서안식물원 원장은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일성화는 한꽃에서 제일 훌륭한 꽃이며 김정일화는 보면 볼수록 찬란과 화려를 불러일으키는 꽃이다.

이번 박람회는 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꽃들이 전시된 것으로 하여 더욱 이채를 띠고있다.

사람들은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앞을 다투어 국제경쟁관을 찾아오고 있다.

나는 우리 식물원에도 이 꽃들을 전시하여 모든 서안 시민들이 볼수 있게 하려고 한다.

서안생태구 원에국장은 조

선전시대가 국제경쟁관에 제일 인기가 높다. 그토록 훌륭하고 진귀한 꽃들인 조선의 김일성화, 김정일화가 전시됨으로써 2011서안세계원에박람회가 더 의미있는 전람회로 되었다. 우리 생태구에서도 이 꽃들을 재배하고싶다고 속마음을 터놓았다.

1950년대 조선전선에 참전하였던 서안시의 한 로인은 80평생에 이처럼 훌륭한 꽃들은 처음 보았다. 김일성화, 김정일화는 과시 꽃중의 왕이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존함을 모신 꽃들을 사랑하고 훌륭히 키우고 있는 조선인민의 순결한 마음에 깊이 감동된다고 강조하였다.

서서TV방송국의 한 기자는 시청자들의 요망에 의해 조선원을 다시 취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김일성화, 김정일화는 이번 박람회에서 최고의 인기꽃으로 되고있다. 서안사람들은 이처럼 완벽 한 꽃을 처음 본다고 이 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고 하였다.

한편 서서TV방송은 국제경쟁관의 조선전시대를 방영하면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하고 진귀한 태양의 꽃, 불멸의 꽃으로 되고있다. 조선인민은 이 꽃들을 재배 하는것을 크나큰 행복으로 간주하고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심을 표시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세계적인 화초 박람회들에서 최고상을 수여받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자폭 테로 그리고 선군정치》

남조선의 인터넷에 실린 글

남조선의 한 인터넷언론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자폭테로 그리고 선군정치》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미국에 강도높은 테로전을 선언한 반미이슬람교세력은 며칠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폭공격을 단행하였다. 반테로의 명분을 내세우고 미군이 강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폭력이 란무하고있다.

만일 미군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북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북은 곧 미국과 남쪽에 대한 보복공격으로 나올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쪽의 경제는 파란날것이고 부자들이 서민이든 생업을 접고 피난의 길에 올라야 하겠는데 중

은 《한》반도에서 피난할 곳도 별로 마땅치 않다. 어찌는수없이 우리는 총폭탄세례를 고스란히 받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극단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다. 미국이 북을 공격할수 없었기때문이다.

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는 다르다. 만일 북의 군사력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수준이었다면 미국은 이미 북을 열백배도 공격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북의 선군정치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있는것이다. 북의 선군정치는 남쪽의 부자는 물론 서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은 사람들의 운명개척의 기본단위

정의와 진보, 사회발전과 번영을 위한 인류의 자주위업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개척되고 발전하고있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자주적운명개척과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러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입니다.》

민족이 사람들의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로 되는것은 사회적단위에서 가장 크고 공고한 집단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찍이 민족은 피줄과 언어, 문화와 지역의 공통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데 대해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피줄의 공통성은 사람들에게 혈육의 정을 가지게 하여 그들

을 하나의 동보형제로 가깝고 친근하게 접근시키며 언어의 공통성은 사람들사이에 서로의사를 교환하고 사상감정을 나눌수 있게 하여 사람들의 결합을 공고히 한다. 문화의 공통성은 사람들사이에 심리적공통성을 낳게 하여 그들을 서로 밀접히 결합시키며 지역의 공통성은 각방면에서 사람들사이에 련계와 접촉을 밀접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결합을 공고한것으로 되게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민족은 다른 사회적집단보다도 가장 공고한 사람들의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로 된다.

민족이 사람들의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로 되는것은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민족의 한 성원이다. 그 누구든 자기 민족을 떠난 남의 나라에서 산다 하더라도

남아준 부모가 분명한것처럼

민족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민족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 하여왔다. 민족을 떠난 개인의 운명 그자체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회를 이루는 각이한 계층은 민족의 구성부분인것으로 하여 그의 운명도 민족의 운명과 련관되게 된다.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어야 각이한 계층의 운명도 옹바로 개척될수 있다. 민족이 예속되면 그 민족의 모든 계층도 남의 노예로 된다. 지난세기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고통받고 수난당하였는 구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수공업자, 민족중요인, 민족자본가를 비롯하여 각이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사상과 리념, 계층보다 민족을 더 중시하고 모든것을

민족공동의 리익과 요구에 복종시켜야 한다. 이것은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조국통일위업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애국위업이다. 북과 남의 모든 계층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민족의 대단합도, 조국통일도, 나라의 부강한영도 이룩할수 있다.

은 겨레는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으며 민족의 립성변명이 민족성원들의 보다 행복하고 휘황한 미래를 안아온다

것을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적위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리홍수

선군침송의 메아리

지난해 10월 남조선의 《자주민보》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결심은 이미 세우졌으며 모든 준비도 끝났것 같다.

물론 그 시기를 단정할수는 없다. 다만 2012년 김일성주석 탄생 100년이 되는 4월 15일이란

는 당면목표를 달성하려 할것이 자명해보인다. 이제 1년반이 남아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결심은 무엇일까?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와 《김정일장군》이라는 《로동신문》 정론에서 그 답을 찾을수 있다고 본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도한 자리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강조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말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결심만 내리면 북주민들은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반드시 명령을 관철해볼 의지에 넘쳐있으며 물질기술적인 준비를 완전히 끝냈다는 말로 판단된다.

사실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주민들의 일심단결은 사상최고의 높이에 이르렀다.

북주민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책적판단이 모두다 옳은것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고있다.

고난의 행군시절에 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군사력강화에 필수적인 CNC기술개발 등 국방분야의 투자를 계획대로 단행하였다.

군사기술분야에 쓰인 기술들이 경제분야에 적용되면서 주체철족포, 비날론폭포, 비로폭포가 되어 쏟아지고 수많은 중장비들이 생산과 건설현장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당시 단상을 내려가시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몇걸음 걸다가 다시 환호성을 터뜨리는 주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미소를 보내 격려해준것도 그리고 따라준 북주민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때문이 아니였을가 생각된다.

북 주민 들 모 두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결심이라든 불붙을 가지지 않고 뛰어들결의에 넘쳐있는것이다. 즉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말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결심하면 북주민들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만한다는 말로 해석되는 것이다.》

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단호하고 북의 인민들의 일심단결의지도 그 어느때보다 확고한것이라는데 대해 강조했다.

본사기자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

지금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엄청난 시련을 겪고있다.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여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과소상태에 있고 전쟁위험이 날이 커지고있다.

현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가 한마음뜻이 되어 민족주체의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장을 짓부시며 자주통일시대를 계속 힘차게 전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통일문제의 본질이 말해 주듯이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다름아닌 조선민족이다. 통일문제해결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것도 우리 민족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사자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때문에 민족자주

권을 되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내맡길수는 없다.

지나온 조국통일운동의 역사는 조국통일의 주체의 위력을 강화할 때 자주통일위업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벌여왔다. 남조선에서도 지난 시기 특정한 통일운동단체들에서만 벌리던 조국통일운동에 노동자, 농민, 예술인, 종교인,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대증적으로 참가하여 통일열의를 드높였다. 평양과 금강산, 부산과 제주도를 비롯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북과 남의 겨레가 터치는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의 구호가 세차게 울려나오고 통일운동세력의 연대와 단합이 강화되었다. 말그대로 7천만인 통일운동의 주인이 되어 목소리를 합치고 자주통일의 수레바퀴를 힘있게 밀어온 우리의 나날들이었다. 그속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추동되고 6.15시대는 앞으로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위업은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난관과 시련을 겪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북남공동선언의 고수리행을 주장하는 통일인사들과 단체들이 《친북리직》으로 몰려 박해와 탄압을 받고있으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도 진행되지 못하고있다.

오늘의 엄청난 현실은 반통일세력의 도전에 대처하여 통일세력의 단합과 노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통일에 국세력과 분열매국세력사이의 첨예한 대결이고 투쟁이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사대매국세력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대결과 전쟁의 찬바람만 몰아오고있다.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이러한 대결책동을 짓부시지 않고서는 민족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을

을 지킬수 없으며 북남관계의 개선도, 자주통일과 평화변영도 이루어질수 없다.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반통일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서버려야 한다.

민족적단결은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홀어지던 폐하고 뭉치면 이기는것은 조국통일운동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진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거족적으로 벌려나아가야 한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리므로써 이 땅에 자주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강현철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1돛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들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6.15공동선언체택후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들을 다시 잇고 분열의 장벽에 파열구를 내었으며 고위급회담들과 경제적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대단합을 시위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명박과 당은 《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조작하고 전쟁위험을 증대시켰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세계 최초의 열핵

전쟁으로 될것이며 조선반도만이 아니라 세계의 넓은 지역으로 번져질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이자 세계의 평화이다.

조선의 평화와 통일의 유일한 방도는 6.15공동선언리행과 북남대화에 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리명박대행진방안을 받아들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에 조속히 나설것을 요구한다.

본사기자



자주통일위업실현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

노래는 해당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과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다.

겨레의 통일념원을 노래에 담아 펼치는 우리의 노래기행도 어느덧 1980년대에 이른다.

1980년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펼쳐나가는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린 투쟁과 격동의 년대기였다. 이 시기에 통일노래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가운데는 강혁작사, 김웅이작곡으로 1989년에 창작된 가요 《통일의 길을 열자》도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오랜 세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사상과 제도가 다른 조선반도의 구체적현실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통일방안인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찬동을 불러일으켰다.

공화국정부의 합리적인 통일방안과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오래동안 중단되었

고있다.

돌이켜보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오랜 세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사상과 제도가 다른 조선반도의 구체적현실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통일방안인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찬동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겨레의 높아가는 통일열의에 당황망조한 남조선 파쇼당당은 공화국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여나서는 남조선의 진보적인 정치

미무풍지대》였던 남조선에서 새로운 반미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되었다.

지난 세기 80년대를 휩쓴 이러한 자주통일의 새로운 기운과 약동하는 시대정신이 노래의 첫걸음에 그대로 반영되었던것이다.

당시 겨레의 높아가는 통일열의에 당황망조한 남조선 파쇼당당은 공화국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여나서는 남조선의 진보적인 정치

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다.

이것은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욱 부풀어 오르게 한데 국적장기였지만 남조선과 쏘대당은 그들이 남북평화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쇄국랑을 채워 칠창총을 가두고 갖은 박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으며 드디어 6월민주항쟁을 통하여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자기들의 강렬한 념원과 불굴의 의지를 시위하고 미국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밀뿌리쳐 뒤흔들어놓았다.

겨레의 통일열망이 고조되는 속에 1989년 3월에는 남조선의 《전민련》고문인 민익환목사가 분열의 장벽을 뚫고 평양으로 달려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 제통일방안을 지지하여나서는 남조선의 진보적인 정치

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다.

이것은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욱 부풀어 오르게 한데 국적장기였지만 남조선과 쏘대당은 그들이 남북평화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쇄국랑을 채워 칠창총을 가두고 갖은 박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으며 드디어 6월민주항쟁을 통하여 자주,

격조높이 토로되고있다.

이 나라 이 땅이 누구의 땅인데 오가지 못하느냐 분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의 새날을 맞자

조국의 통일보다 귀중한것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갈라진 조국을 후대들에게 어이 넘겨줄스나고 절절하게 호소하는 노래의 3절은 오늘날도 우리 겨레의 가슴을 울려주고있다.

노래가 나온지도 어느덧 스무해가 넘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겨레가 바라는 통일이 오지 않았다.

오늘도 남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파쇼매국세력은 6.15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 버리고 갖은 모략과 대결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이 땅에 전쟁의 위험만을 몰아오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반통일대결책동으로써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6.15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수 없다.

겨레는 통일의 노래를 계속 높이 부르며 이 땅에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그날을 기어이 앞당겨오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유정

노래에 비친 겨레의 통일념원 《통일의 길을 열자》

통일을 부르는 하나의 웨침 강산에 메이리치고 갈라져 살수 없는 우리의 겨레 이 길에 펼쳐나섰다 통일의 앞길을 막는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의 소원 이룩해가자 통일의 한길로

노래는 우리 겨레의 단합된 투쟁으로 통일의 앞길을 막아나서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격조높이 구가

던 적십자본회담이 진행되고 조국해방 40돛을 계기로 예술단과 교향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각각 오가게 되었으며 북녘의 동포애가 갖는 구호물자가 남조선의 수재민들에게 가닿는 등 회한한 현실이 펼쳐졌다.

겨레의 통일열망이 더욱 높아오르는 속에 남조선에서도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특히 광주민중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 강진한 미국의 침략적, 략략적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면서 《반

세력과 민주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각종 《죄명》을 씌워 체포투옥하는 한편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면서 북과의 모든 령계를 차단하고 북과 남을 갈라놓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공》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정치적장벽을 더 높이 쌓았다.

그러나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으며 드디어 6월민주항쟁을 통하여 자주,

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다.

이처럼 제 나라 제 땅도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게 범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으며 드디어 6월민주항쟁을 통하여 자주,

《전쟁〈정권〉 심판투쟁에 펼쳐나설것이다》

남조선 각계의 목소리

남조선에서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련일 벌려놓고있는 리명박《정권》을 단죄, 규탄하는 웨침이 각계에서 더욱 힘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일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호전광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단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각종 포돌과 전투기, 초계함 등 선제공격무기들을 동원한 조선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의 해상사격훈련은 대결의 종식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조속한 설치를 바라는 민중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써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킬뿐이라고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특히 미해병대장교들이 지

켜보는 가운데 훈련이 강행된다는 그자체가 이번 군사연습의 도발적성격을 보여주고있다고 까밝히었다. 조선사해에서의 끊임없는 전쟁연습으로 하여 이곳온 긴장수위로 변했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보수당국이 북남관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의 여러 통일운동단체인사들은 6.15공동선언리행과 북남대화대행을 위한 자주평화통일통성단을 구성하고 11일 통일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최근 북남대결이 날로 심화되고있는것은 보수집권세력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미국, 일

본상전들과의 야합하에 핵선제공격수단까지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계속 강행하고있기때문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오늘날의 현실은 전체 민중을 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철회시키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투쟁으로 힘차게 부르짖고있다고 언명하면서 통성투쟁을 벌리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1일 단결된 힘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할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보수당국이 미국, 일본과의 침략적인 동맹강화에 궤논이 되어 날뛰면서 북침전쟁장비구입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이것은 동족대결과 조선반도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평화

를 위협하는 엄청난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아울러 성명은 북침전쟁장비구입에 막대한 현세가 탕진되고 민중의 생존이 위협받는 오늘의 현실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각계 민중이 단결하여 현《정권》을 심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마디로 리명박은 남북화해와 협력관계를 비롯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데 그런 발언을 한다 는것자체가 기만적이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작은것 하나도 소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봉쇄하여왔고 국내에서 북의 사정을 알리고 노력하는 애국청년들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마저 《보안법》이라는 천하의 악법으로 련행하고 탄압해왔다는것은 만인이 주지해온 사실이다. 리명박《정부》는 심지어 북의 식량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사업까지 방해하고 휘방해온 그야말로 악질적세력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있는 상황에서 그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도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반역《정권》심판투쟁에 펼쳐나설것을 다짐하였다. 성명은 끊임없는 북침전쟁소동으로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 기만과 독선으로 일관된 부패한 정적으로 민중을 고통속에 몰아넣고있는 보수당국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있다고 하면서 진보세력이 전쟁《정권》심판투쟁에 적극 펼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황공모함까지 끌어들이며 상생을 전쟁상황으로 만들어온 장본인들로 지적한다. 그것은 리명박《정권》과 오바마 미국정권이다. ...

리명박《대통령》은 취임하는 그날부터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정책의 본질을 드러냈다. 그는 비록 2008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7천만 국민과 통일을 위해서라면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은 어느 한 오찬간담회에서 《6차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확실한 안전보장제공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것도 그 원칙이 허구라는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11월 6일의 교안보자문단 조찬간담회에서 《거듭 말하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 원칙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것이 나

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대북대결정책으로 전쟁을 불사한 위험천만한 초진정책으로 일관해왔다고 말할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해내의동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리명박《정권》의 대북방언을 더 이상 믿어서는 안된다. 진정성이 없으면서 상대편을 향해 《진정성》을 운운하며 여론을 오도하는것은 국내외동포들을 기만하는 자세이다.

둘째로, 해내의동포들은 리명박《정권》이 주장하는 《대북정책》이 전쟁의 위험을 안고있는 《흡수통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절대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야 한다.

셋째로, 리명박《정권》은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는 6.15공동선언정신과 10.4선언정신의 립장을 거부하고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며 《한》미일3각군사동맹에 의한 대북고립압살을 꾀하는 사대매국정적으로 일관하고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의 퇴진을 추구하는 운동

본사기자

《베를린발언의 허구성》



광주항쟁용사들의 정신을 이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할것을 다짐하는 남조선인민들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허구라는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취임당시 남북관계를 말아보기 위하여 내각의 중요한 부서를 운영되어왔던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그것을 강행하지 못했다. 이 사건도 리명박《대통령》 자신이 조국도의 사태를 전쟁으로 몰고 갔다. 지난 한해 지속적으로 북을 침략하는것을 목적으로 삼정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핵

고 리산가족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남측과 경제된 관계를 풀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는것을 사람들은 충분히 파악하고있다.

리명박《정권》은 자신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북측을 향해 《진정성》을 운운해왔다.

2010년 한해를 돌이켜보아도 리명박《정권》은 조국반도의 사태를 전쟁으로 몰고 갔다. 지난 한해 지속적으로 북을 침략하는것을 목적으로 삼정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핵

의 일관된 생각이다.》라고 말한것도 그 원칙이 허구라는것으로 드러났고 2010년 8.15광복절경축사에서 《평화공존, 경제공동체, 민족공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통일세 등 현실적방안을 준비할 때가 왔다.》고 말한것도 대우를 본질이 평화통일이 아니라 전쟁위험을 안고있는 《흡수통일》의 야욕을 내비친것으로 들어나고있다.

리명박《대통령》이 지난 3년동안에 남북관계에 대해 한 업적이나 사업이 무엇이

본사기자

강점군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

강점군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재앙이 따르리라이다.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이 저지른 끔찍한 환경파괴범죄가 드러나 우리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북로전반과 같이 미군은 1978년에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에 있는 미군기지에 축구장크기만 한 면적의 구멍을 파고 거기에 무려 50에 달하는 고엽제를 매몰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이뿐 아니라 인체에 피해를 주는 폐기된 각종 화학물질들을 이 지역에 매몰하였다.

강점군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환경 파괴범죄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고엽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유독성화학물질의 하나이다.

청산리키의 1만배, 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가진 고엽제는 인체내에 축적되어 10~25년 이 지난 후에도 폐암, 후두암 등 각종 암과 당뇨병, 말초신경병 등 많은 질병을 초래하며 지어는 독성이 유전되어 그 영향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후대에까지도 미친다고 한다. 이로 하여 고엽제는 국제법적으로도 철저히 사용금지된 독성물질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이 식용수로 리용하는 락 동강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왜관미군기지에 유독성물질을 아무 거리낌없이 묻은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건강과 생명같은것은 안중에 없는 침략군, 강점군의 횡포무도한 정체를 고발하는것이다.

고엽제로 남조선을 황폐화시킨 미군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폭로된것처럼 미군은 1968년 남조선강원도의 화천, 양구, 린제 등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남조선군을 동원하여 88000톤의 고엽제를 마구 살포하였다. 그때 고엽제 살포에 내몰렸던 수많은 남조선군 사병들이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각종 질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있다. 이번에 드러난 고엽제매몰지역의 주변에 살고있는 칠곡군주민들속에서 지난 시기 다른 지역보다도 특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암이나 신장계통질병에 걸려 숨진것으로 확인된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은 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확인》이니, 《합동조사

단》구성이니 뉘니 하며 마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듯이 부산을 피우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에서 지난 시기의 초보시위와 같은 반미항쟁이 일어나는것을 막고 어떻게 하나 저들의 만행을 은폐시키기 위한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미군은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이 아니라 오직 저들의 침략적, 약탈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현지에 틀고앉아있는 침략군이며 강점군이다. 미군은 남조선을 강점한 지난 60여년간 남조선인민들을 학살의 대상, 약탈의 대상으로만 삼아왔다.

이번 고엽제매몰도 남조선인민들의 목숨을 파괴목숨만치도 여기지 않는 미군의 흉악한 본성이 낳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환경파괴 범죄이다.

왜관미군기지에 고엽제를 몰래 매몰한 당사자인 미군이 지금까지 그것을 숨겨온것부터가 기만이다.

이것은 그 사실을 알고있었기때문에 저들만의 안전을 위한 사전대책을 세워놓고있었다. 미군이 기지내에 지하수오염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구멍을 뚫어놓고 고엽제에 의한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확

인사업을 한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전문조사단이 밝힌데 의하면 1991년부터 남조선주둔 미군의 환경오염만행이 드러났지만 해도 모두 47건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2010년 돌러버는 사격장 6곳중 4곳은 남을 비롯하여 인체에 유해로운 각종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이상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친미사대에 환장이 된 남조선의 현보수집권세력은 《우방》이니, 《형평》이니 하면서 미군의 각종 범죄만행을 비호두둔만 하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미군이 저지른 《범죄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범죄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정부》는 조사하는척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모든 범죄는 무사되었다.》며 분노와 울분을 터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사실들은 남조선에 미군이 남아있고 침략군의 온갖 만행을 비호두둔하는 친미보수세력이 권력을 쥐고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더 큰 고통과 재난을 당할수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김철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최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유독성화학물질인 고엽제를 미군기지에 몰래 대량 매몰하는 사건이 드러나 온 민족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6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972호를 발표하였다.

이 보도는 다음과 같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5월 16일 남조선의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의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던 이전 미군병사 3명은 자신들이 1978년 상부의 명령에 따라 무려 50에 달하는 고엽제를 가지안에 파묻었으며 그로 하여 지금까지도 신체마비 등 후유증을 앓고있다는 충격적인 진언을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에 복무한 미국의 다른 퇴역군인들과 이전 고엽제피해사건 역시 이번 남조선사람들도 경기도 부천을 비롯한 여러 기지들에서 미군이 유독성화학물질들을 비밀리에 땅에 매몰하였다는 사실을 잇달아 폭로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야만적인 독성물질매몰로 남조선의 많은 지역이 크게 오염되고 지하수까지 영향을 받아 농작물 재배와 먹는물리용에 엄청난 후과를 미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층과 언론들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 《미군강점의 죄악》, 《국민생명을 해치고 우리 땅을 죽음의 땅으로 파괴한 야만행위》로 단죄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번에 드러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고엽제매몰사건을 신성한 우리의 강토를 무참히 파괴하고 사람 못살 볼모지로 만들어 조선민족을 전멸시키려는 또 하나의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로 악인하면서 이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준엄히 규탄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도처에 군사기지와 훈련장, 폭격장, 사격장들을 만들어놓고 광란적인 북침전쟁행동을 일삼으면서 각종 유독성물질들을 마구 버리고 무려 생채널을 여러 개 파고 파묻고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엄중히 해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에 의한 고엽제피해사건 역시 이번 남조선사람들도 경기도 부천을 비롯한 여러 기지들에서 미군이 유독성화학물질들을 비밀리에 땅에 매몰하였다는 사실을 잇달아 폭로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야만적인 독성물질매몰로 남조선의 많은 지역이 크게 오염되고 지하수까지 영향을 받아 농작물 재배와 먹는물리용에 엄청난 후과를 미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층과 언론들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 《미군강점의 죄악》, 《국민생명을 해치고 우리 땅을 죽음의 땅으로 파괴한 야만행위》로 단죄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번에 드러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고엽제매몰사건을 신성한 우리의 강토를 무참히 파괴하고 사람 못살 볼모지로 만들어 조선민족을 전멸시키려는 또 하나의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로 악인하면서 이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준엄히 규탄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도처에 군사기지와 훈련장, 폭격장, 사격장들을 만들어놓고 광란적인 북침전쟁행동을 일삼으면서 각종 유독성물질들을 마구 버리고 무려 생채널을 여러 개 파고 파묻고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엄중히 해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에 의한 고엽제피해사건 역시 이번 남조선사람들도 경기도 부천을 비롯한 여러 기지들에서 미군이 유독성화학물질들을 비밀리에 땅에 매몰하였다는 사실을 잇달아 폭로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야만적인 독성물질매몰로 남조선의 많은 지역이 크게 오염되고 지하수까지 영향을 받아 농작물 재배와 먹는물리용에 엄청난 후과를 미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층과 언론들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 《미군강점의 죄악》, 《국민생명을 해치고 우리 땅을 죽음의 땅으로 파괴한 야만행위》로 단죄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번에 드러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고엽제매몰사건을 신성한 우리의 강토를 무참히 파괴하고 사람 못살 볼모지로 만들어 조선민족을 전멸시키려는 또 하나의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로 악인하면서 이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준엄히 규탄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도처에 군사기지와 훈련장, 폭격장, 사격장들을 만들어놓고 광란적인 북침전쟁행동을 일삼으면서 각종 유독성물질들을 마구 버리고 무려 생채널을 여러 개 파고 파묻고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엄중히 해치였다.

《미군은 이제 떠나야 한다》

남조선 각계가 미군의 고엽제매몰만행을 규탄

최근 남조선에서 지난 시기 미군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환경파괴범죄가 연이어 드러나 이를 단죄규탄하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23일 서울에서는 민주로총,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녹색연합, 언론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대표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모여 《주(한) 미군고엽제매립범죄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토론회자들은 미국이 고엽제 같은 맹독성물질을 대규모로 매몰하고 수십년간 은폐해온데 대해 지적하면서 과연 미국이 혈맹인가, 이번에 드러난 일은 환경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일으킨 환경범죄라고 분노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한목소리로 고엽제매몰진상조사가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피해지역 주민 등을 포함시킬것,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에 즉각 착수할것,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할것 등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미군에게 치외법권적지위를 부여한 불평등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

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와 이를 비호두둔하는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로도 울려나왔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저지른 범죄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범죄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정부》는 조사하는척 하다가 그냥 넘어갔고 모든 범죄는 목살되었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만 해도 우물우물 하다가 그냥 넘어간지 9년이 지났다.》며 《고엽제문제는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들은 《반환미군기지를 치유하는데 미군은 단 1US\$도 안산다.》며 미군과 그에 굴종하는 보수당국을 단죄하였다. 회견장에서 시민사회단체대표들과 인민들은 《《한》 미동맹도 《한국정부》도 믿을수 없다. 미군은 이제 떠나야

한다.》고 하면서 23일 저녁부터 광화문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이 저지른 고엽제매립범죄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한편 인천지역 정당 및 시민, 환경단체들은 25일 인천 부평 미군기지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오염조사와 미국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미군이 여기에 유독물질을 매몰했다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기지내 환경오염이 사실로 증명됐다.》며 《미군이 몰래 매몰한것을 불법처리한것이고 이로 인한 우리측 피해에 대해 미국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



반값등록금문제를 둘러싼 내부싸움

남조선에서 새로 등장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부산을 뒀고있다.

매 가정의 수입액수를 구분화하고 등급별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마련을 위해 현 《정부》의 간관으로 되고있는 《감세정책》도 단계적으로 철회하겠다고 하였다.

늦게나마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하면서도 소득액수에 따른 등급제라는 조건을 붙인것으로 하여 또 다시 남조선인민들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더우기 《한나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내부의 반발이 더 거센것으로 하여 반값등록금은 실현불가능했기이라

고 한다.

그도그렇것이 저들이 내세운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한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는것이라고 하니 《청와대》는 씩씩히 입만다시고 《대통령》은 《한나라당》 지도부를 《잘못된 시계》니, 《틀려진 시계》니 하며 머리를 흔들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친리계(리명박계)는 정권수를 못 채우는 대학이 60%이상의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하기때문에 반값등록금을 실행한다는것은 사실상 대학운영비 절반을 세우므로 총당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하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반대해나오고있다.

또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이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원천

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반값등록금제원은 열십 개이름이 아니다.》라는 상스러운 표현까지 써가며 지도부를 공격하는데 열을 올렸다고 한다.

결국 저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때 내세웠던 《공약》이나 지금의 발표가 이루어질수 없는 허무한것이고 그 표현자체도 잘못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하는셈이다.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니 어쩌니 하고있던 이것은 저들의 호러진 영상을 개선해보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며 앞으로 있게 될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주동권을 쥐기 위한 민심기만용의 선전광고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본사기자 김정혁



등록금문제해결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미군의 고엽제매몰만행을 규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공약》과 현실 (1) 파국으로 몰아간 북남관계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경제살리기》와 《서민정치》 등 무수한 《공약》들을 내걸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지도 3년이 지났다. 그의 임기가 1년반정도밖에 안남은 지금 이러한 《공약》들을 따져보면 어느 하나 제대로 실현된것이 없다. 이것은 그 무수한 《공약》들이라는것이 인민들의 환심을 사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기만적인 언사에 불과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지금에 와서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공약을 한 사람이 다 집행할수는 없다.》느니 뉘니 하며 저들의 죄행을 합리화해보려 하고있다. 그 《공약》과 오늘의 현실을 파헤쳐본다.

나라라고 무진 예를 썼다. 이것은 현 집권자가 북남 공동선언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리형할 생각이 없음을 그 때에 벌써 내비친것이다. 그는 선거운동을 벌리면서 《《대북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북핵포기이며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 도울것》이라며 자기의 대북적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당시 미국의 이전 고위급 인물이 《대통령》인장을 받기 위해 미국을 뺨질나게 찾아다니는 현 집권자를 부취에게 소개하는 편지에서 《리명박은 미국공화당과 정책기준이 비슷하고 《한

내리라고 무진 예를 썼다. 이것은 현 집권자가 북남 공동선언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리형할 생각이 없음을 그 때에 벌써 내비친것이다. 그는 선거운동을 벌리면서 《《대북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북핵포기이며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 도울것》이라며 자기의 대북적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당시 미국의 이전 고위급 인물이 《대통령》인장을 받기 위해 미국을 뺨질나게 찾아다니는 현 집권자를 부취에게 소개하는 편지에서 《리명박은 미국공화당과 정책기준이 비슷하고 《한

내리라고 무진 예를 썼다. 이것은 현 집권자가 북남 공동선언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리형할 생각이 없음을 그 때에 벌써 내비친것이다. 그는 선거운동을 벌리면서 《《대북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북핵포기이며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 도울것》이라며 자기의 대북적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당시 미국의 이전 고위급 인물이 《대통령》인장을 받기 위해 미국을 뺨질나게 찾아다니는 현 집권자를 부취에게 소개하는 편지에서 《리명박은 미국공화당과 정책기준이 비슷하고 《한

본사기자 주광일

지열수리용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성과

얼마전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첨단기술인 지열수를 리용하여 건축물의 난방 및 냉방을 보장할수 있는 지열설비들을 새로 개발해내어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효율 높은 지열 자원 리용 분야

지열이란 말 그대로 땅속에 있는 열을 말한다. 사람이 발을 딛고 사는 땅 밑에는 실로 무진장한 지열 자원이 있다.

세계적으로 지열 자원의 리용 실태를 보면 난방 부문과 목욕탕, 온천 치료 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난방보장 부문에서는 지역 난방과 공기 조화기에,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 축산에, 공업 부문에서는 제련 건조에, 수산 부문에서는 양어에 주로 리용하고있다.

지열을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 발전 시설도 하나의 새로운 세계적 추세로 되고있다.

지열 열 펌프 더웬물 난방 체계는 지열을 뽑아내어 적은 소비 전력으로 그 몇 배나 되는 난방에너지를 얻어낸 다음 살림집 난방에

지금 세계적으로 원유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어가고 있는 속에서 지열 자원을 적극 리용하는 것은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리용하는 체계이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먼저 마당에 직경 약 10cm, 깊이 75~100m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이 구멍에 판을 넣고 부동액을 순환시켜 지열을 끌어올린다.

부동액에 의해 증발기로 운반되어온 지열은 저온, 저압의 팽배에 열을 가한다. 열을 받아 증압된 팽배는 고온, 고압 상태로 되어 응축기에서 난방용 물을 가열한다. 뜨거운 이 물이 방열기로 흘러가 방열을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소모되는 전력은 팽배를 압축할 때 뿐이다. 이때의 전기 에너지를 1로 본다면 그로부터 얻어진 난방에너지를 4로서 효율이 매우 높다.

최근 어느 한 나라에 지열을

리용한 에너지를 절약형 살림집이 건설되어 호평을 받고있다. 이 살림집은 땅면과 마루 사이에 자갈을 깔아 바깥공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되어있다. 땅면과 마루 사이에 깔아놓은 자갈층은 땅속의 열을 저축하는 역할을 하며 방안에 대한 자연적인 방열 효과도 나타낸다.

지열 마루 체계는 도입한 살림집에서는 마루를 덮힌 열이 벽이나 천정으로 전달되어 방 안 전체를 덥히기 때문에 방 안 온도가 고르게 유지된다. 이 살림집은 온돌 난방과 달리 먼지가 없으며 방 안 공기 조화에 쓰이는 전기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수도를 유지해 주어 건강에도 좋다.

지열 수리용의 밝은 전망

최근 공화국에서는 지열 자원 리용 분야에 대한 연구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어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으며 인민 경제의 여러 부문에 널리 도입, 일반화되고있다.

지난 4월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효율 높은 지열 설비들을 자체로 설계, 제작함으로써 나라의 풍부한 지열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새로 만든 지열 설비들은 종전의 난방 및 냉방 설비들에 비해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열리용 효율을 몇 배로 높일수 있게 제작된 성능 높은 에너지를 절약형 단열 설비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최첨단 기계 종합 공작에서도 지열수를 리용한 공기 조화 체계가 완성하여 넓은 부지의 공장 건물에 에너지를 절약한 건물로 전환시켰다. 공장의 CNC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에너지를 절약한 건물로 전환됨으로써 생산 문화, 생활 문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되었다.

함경남도 랑사관리 구역에서는 지열을 리용한 온실을 훌륭히 꾸려놓았으며 정방산 종합 식료 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지열을 리용하여 생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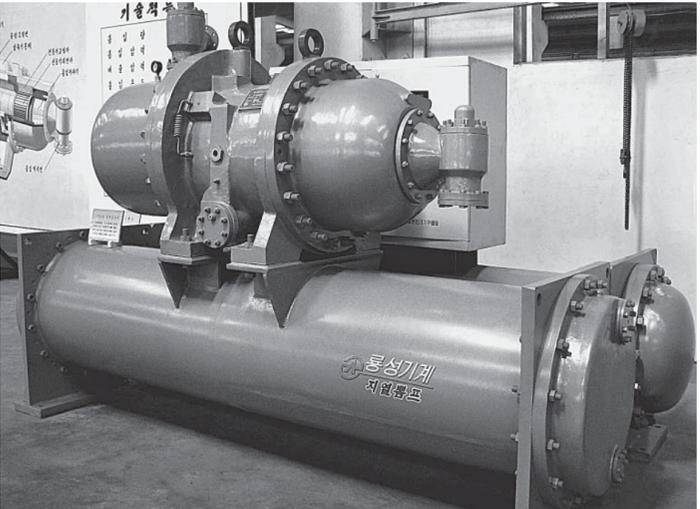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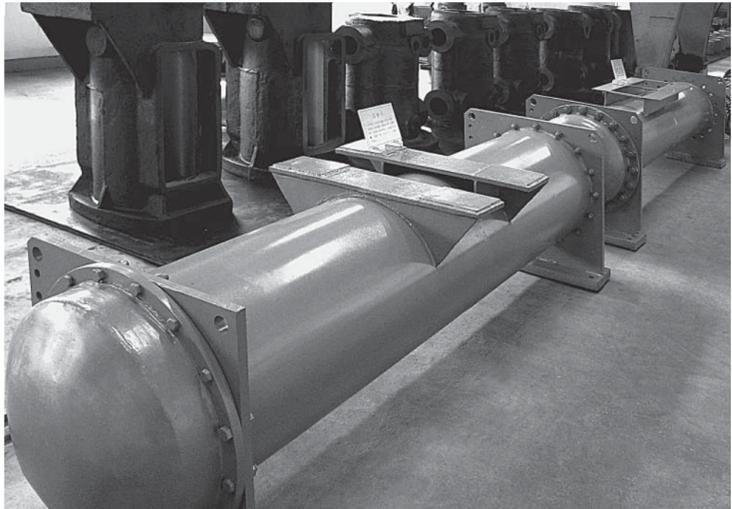
장의 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평양 도시 설계 사업소의 전망 설계 연구실 실장은 주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 구역의 건물들과 주택들, 공장, 기업소를 중심으로 지열수를 리용하는 난방 및 냉방 체계 형태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 있게 진행하고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축물을 새로 세울 때 지열수를 리용하기 위한 타산과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에 맞게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며 이미 있는 건물들을 개조하여 지열수 난방 및 냉방 체계 설치를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고 한다.

《지열수를 리용하기 위한 사업은 첫 걸음을 떼며 불과하다. 하지만 시작이 절반이라고 이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면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가 지열 수리용 대국으로 될수 있다.》며 그는 자신감을 표시했다.

앞으로 지열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리용할 때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남조선의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5월 6일)는 한호석 통일학 연구소 소장이 쓴 《지열을 리용한 북의 친환경 대체 에너지 기술》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 밑에 새로운 지열 리용 기술이 개발되어 경제에 적극 도입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010년 12월 21일 조선 중앙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1세기 표본 공장으로서 최첨단 기계 종합 공장을 현지 지도》 하겠다고 보도하였다. 불과 6개월 만에 세계적으로 앞선 에너지를 절약한 공장이 되었다. 이 공장은 최첨단 수준에서 CNC화를 실현한 거대한 공장이다. 4층부터 9층에 이르기까지 각종 CNC 공작 기계들이 가득하다. 공장장님의 7배가 되는 드넓은 건물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동차를 타고 공장 안을 돌아보았다.

어떤 것이든지 다 만들수 있는 고도의 기계 공학 기술로 무장되어있고 세계적으로 앞선 에너지를 절약한 공장으로 개조되어있었다.

북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이 에너지를 절약한 공장을 북에서는 특색형 공장이라 부른다.

특색형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북이 개발한 기계를 무엇이었을까? 공장 건물 전 체를 단열재로 마감하여 보존 효과 높이고 공장 주변 지하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가지고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보장하여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출 인 것이다.

지하수를 리용하여 난방에 네

르기를 절약하는 설비를 《지열 교환기》라 하는데 3m에 이르러는 지하수 3m에 흐르는 지하수의 온도는 1년 내내 변함없이 섭씨 10~15도로 유지되는데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 열압축하면 섭씨 40~50도의 지열수로 된다. 겨울철에는 열압축한 지열수를 리용하여 실내 온도를 높이고

여름철에는 열압축을 하지 않은 섭씨 10~15도의 지하수로 실내 온도를 낮춘다. 그렇게 하면 에너지를 종전의 20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공장장님의 7배나 되는 큰 공장에 난방을 보장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였으므로 이전에는 난방을 제대로 보장할수 없었다. 그런데 CNC화된 설비들의 정밀 공정에는 너무 출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적당한 실내 온도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문제를 지열 교환기가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보통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최첨단 기계 설계를 완성하였고 한 달 만에 시제품을 생산하였다. 바로 이 설비가 최첨단 기계 종합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북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우리식 지열 교환기》이다.

북의 각지에 있는 기계 공장들에서 이 지열 교환기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보급한다고 한다. 이것은 1~2년 안에 북의 모든 공장들이 특색형 공장으로 개조된다는 뜻이다.

북의 공학 기술은 CNC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특색 건축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있다.

본사기자

《지열을 리용한 북의 친환경 대체 에너지 기술》

작아도 큰일을 하는 공장

봉화비누공장을 찾아서

봉화비누공장이라고 하면 평양시민들치고 그 덕을 입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덕이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봉화》표 세탁비누와 세수비누는 그 질이 좋아 널리 소문이 났다.

얼마전 우리는 질 좋은 비누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봉화비누공장을 찾아왔다. 생산의 동음이 고르게 울리는 현장에 들어서니 자동 흐름선을 타고 갖가지 세탁비누와 세수비누 제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있었다.

불수룩 호젓한 광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승천 책임기사는 공장에서 해마다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세탁비누와 세수비누를 떨구지 않고 공급해주고있다고 말해주었다. 불과 수십여 명의 종업원들을 가진 크지 않은 공장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대한 비누공급을 정상적으로 맡아주고있다는 정말 작아도 큰 공장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공지 어린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자동 흐름선을 타고 끝없이 흐르는 《봉화》표 세수비누 한 장을 들어보았다. 폐부에 스며드는 그 육한 향기에 금시 정신이 맑아지는 것만 같아 기분이 상쾌해졌다. 삼겹살에 가면 사람들이 여러 비누 제품들 중에서 《봉화》표 비누를 먼저 고



르는 리유를 비로소 알만 했다. 이 공장의 비누 제품들은 거품이 잘 일고 때가 잘 질 뿐 아니라 향기 그윽하고 물에 담그어도 잘 녹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승천 책임기사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비누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소비품의 하나라고 하면서 공장의 종업원들 누구나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맞게 비누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있다고 말해주었다.

무슨 일에서나 우연한 성과만 있는 법이다. 오늘 《봉화》표 비누가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기까지는 인민들의 위생 문화 생활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비누 제품 생산 공정을 훌륭히 꾸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비 관리, 기술 관리에 선착적인 관심을 돌려온 신준에게

배인파 지승천 책임기사를 비롯한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 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공장에서는 정보 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이미 있던 설비들을 들여내고 짧은 기간에 생산 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원료 투입으로부터 정제, 연마, 진공 압출, 자동 인쇄 절단 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공정을 컴퓨터로 지휘 조종하니 지난 시기에 비해 제품의 생산량과 질이 몰라보게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거둔 성과에 조금도 만족을 모르는 이들은 전반적인 생산 공정의 CNC화와 통합 생산 체계를 실현할 보다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공장의 생산 결과는 인민들에게 갖가지 비누 제품을 공급해주는 상업 봉사망들에서 나타납니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질 좋은 비누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상업 점들에 보내주겠습니다.》 지승천 책임기사의 말에서 우리는 질 좋은 비누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여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갈 이 공장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애국의 열의를 읽을수 있었다.

본사기자 박원평



메히코 신문 《우니다드 나세오날》 15일부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혁명 활동 사진을 모시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헌언에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최근 조선이 철갑상어의 대규모 양어 체계를 확립하고 바다 양어에서 완전 성공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각별한 주목을 끌고있다고 하면서 통영양어장과 통연바다 양어 사업소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는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메히코 신문의 글

이 놀라운 현실은 강성대국을 향하여 비약하고 있는 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웅변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지금 조선은 우주 과학 기술, 핵 기술, 나노 기술, 생물 공학 기술 등 세계 최첨단 기술을 돌파하며 강성대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선진적인 성과를 다채 단으로 펼쳐놓고있다. 인민

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것을 강성대국의 중요 지표의 하나로 규정하신 김정일 영도자께서는 인민들에게 철갑상어를 비롯한 회기 한 고급 어종들을 마음껏 먹이실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밝혀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곳곳에 훌륭한 양어기지를 일떠세

우도록 하시고 평양의 중심부에 있는 유명한 대종식당인 유류관에 철갑상어 요리뿐만 아니라 명료리들을 봉사하는 로리전문식당을 새로 내오게 하시었다.

언제인가 통연바다 양어 사업소와 통영양어장을 현 지지도하신 김정일 영도자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귀중한

밀천이 마련된 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면서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양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여기에는 조선의 현실과 미래가 집약되어있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좋으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결코 먼 앞날의 일이 아니다.

본사기자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어린 금속유물들

《우리 나라 금속유물 전시회》 진행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과 무성한 잎새들의 바래움속에서 유유히 흐르는 풍치수려한 청동단검인 비파형 단검과 B.C. 2천년경에 나온 좁은 낫단검은 고대 조선 문화의 고요성을 실증해주는 국보적인 것이었다.

얼마전 우리는 민족의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보여준다는 금속유물 전시회를 찾았다. 전시회장에 들어서니 갖가지 진귀한 금속유물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금속유물 전시회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창조적 재능을 보여주는 고조선 시기부터 세나라 시기까지의 금속유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차승용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된 유물들을 차례로 돌아보던 우리는 고조선 시기 선조들이 무기로 만들어 사용하던 비파형 단검과 좁은 낫단검 그리고 번개무늬 거울 앞에서 걸음을 멈추

었다. B.C. 3천년경에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 유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청동 단검인 비파형 단검과 B.C. 2천년경에 나온 좁은 낫단검은 고대 조선 문화의 고요성을 실증해주는 국보적인 것이었다.

검이 옛날의 악기인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비파형 단검으로 불리워온 단검은 초기 비파형 단검(길이 28cm 미만), 중기 비파형 단검(28~32cm), 후기 비파형 단검(32cm 이상)으로 발전하면서 점점, 검자루, 검자루 받개 등을 따로따로 만들어 조립하여 적을 찌르는 무기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었다. 청동 검자루에 새겨진 정교한 무늬로 보아 후기 비파형 단검 시기에 금속 가공 기술이 평양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음을 한눈에 알수 있었다.

수천년 동안 땅속에 파묻

혀있던 청동 제품들과 철 제품들이 녹슬지 않고 본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도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 비결에 대해 강사는 《당시 우리 선조들은 녹방 부재를 창안하여 청동 제품들의 결면에 발라 녹을 막았습니다.》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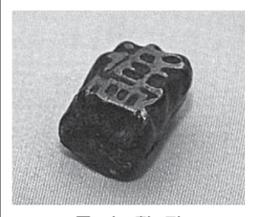
세나라 시기의 금속유물들도 경관을 자아냈다. 특히 고구려 시기의 금속마구류들인 가구머치레, 살구일치레, 자갈뭇추개, 금동말, 안장터레와 쇠가자창, 활들은 상무기공을 중시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모습과 창조적 지혜, 그 당시 높은 수준에 있었던 금속 가공의 발전 모습을 한눈에 알수 있게 하였다.

B.C. 1~3세기경의 것으로 알려진 지평이 손잡이 구리,

금동장식품, 청동향로, 화면금동장식고리, 물메미형 장식품들과 고구려 시기의 불상들인 금동1광3존불상, 소나무모양 금동장식품, 백제 시기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신라 시기의 금동약사여래립상 등 수많은 유적, 유물들이 이 시기에 벌써 선조들이 금속을 녹여 가공하는 기술을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고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퇴색을 모르는 금속유물들, 선조들의 뛰어난 창조적 지혜와 재능이 어려웠던 보물과도 같은 금속유물들을 보여주는 《우리 나라 금속유물 전시회》는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 가슴을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더한껏 부풀어오르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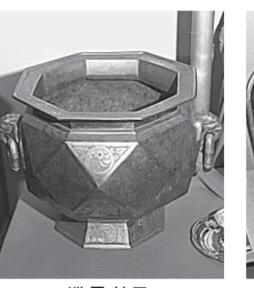
금속 활자



비파형 단검



동 조상



백동화로



말안장과 깔개

